

민간위탁사업 효율성 높인다

전주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위해 운영평가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

전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실시해온 민간위탁사업 평가방식을 직접평가로 전환하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그간 실시해온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위탁사무별 고유한 특성 및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평가 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전주시의원을 포함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평가를 추진,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민간위

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될 평가단은 단순한 실적평가를 넘어, 위탁사무별 특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위탁사무 감독부서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평가에 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재무 및 예산관리 분야 평가에 △예산 절감 성과 △투자 대비 효율성 지표 등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위탁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더욱 세심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위탁사무는 시설보수 등을 지원하고, 수탁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부진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

강화 및 민간위탁 외 적정 운영방식 전환 검토 등 신규 패럴티를 적용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방식 전환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전주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 134개 중 중앙부처 평가를 받는 사무와 별도 예산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를 제외한 27개 사무 중 2025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전주시도 인취업지원센터 등 4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옥기 기자

전북 시장·군수, 산불 이재민에 성금 전달

시장군수협의회, 2000만원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들이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은) 31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

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상생의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는 "호남과 영남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이고 국가적 재난 앞에 더 이상 지역은 경계가 될 수 없다"며 "지역을 초월한 협력과 나눔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현을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향후에도 전국적인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공동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롯데하이마트 송천점, 4~7일 최대 세일 진행

롯데하이마트 송천점(점장 오진태)이 오는 4월 4일~7일까지 웨딩/이사/입주 고객을 위한 연중 최대 세일에

들어간다. 웨딩과 입주고객에게는 전국 최저가 수준의 혜택으로 가전을 구입 할 수



있다.

특히 웨딩은 지역업체인 데메이와 플레드 웨딩, 입주는 지역 내 본아트, 남전주 서희 스타힐스, 대삼 군산 프리미엄등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 되기 전 에어컨 과 시스템에어컨도 별도의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시스템에어컨은 전국판매 1위 달성기념 최저가 보장세일을 진행한다.

에어컨은 사용 전 클리닝 서비스를 연중 최저가 행사로 진행하며, 롯데하이마트 송천점에서는 클리닝 고객에게 클리닝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1년간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송천점은 애플샵 입점점으로 4월 출시예정인 신상품도 가장 빠르게 만나 볼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자매도시 안동시 산불 피해 지원 나서

밥차·구호물품 지원

전주시가 대규모 산불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한 자매도시 경북 안동시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나섰다. 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안동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밥차와 구호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진) 주관으로 이동 급식 차량 2대와 승합차량 1대 등 총 3대의 차량과 푸드팀, 센터 직원 등 총 10명을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에 파견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이동 급식 차량(밥차)을 활용해 총 7끼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자매도시 전주시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차는 안동시 대포소로 지정된 안동용산초등학교(경북 안동시 경동로 900)를 찾아 이재민 25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또한 시는 안동시의 이재민 지원과 산불 진화 현장에 필요한 구호물품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호성전주병원은 소방관용 양탄 500벌과 속옷 1000벌, 여성용 생화복 바지 300벌 등 10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으며, 전주시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주



전주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총 3대의 차량과 푸드팀, 센터 직원 등 총 10명을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에 파견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이동 급식 차량(밥차)을 활용해 총 7끼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도 수건 6000벌 등 3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부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지난 1999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관계를 이어온 전주시와 안동시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안동시도 지난 2016년 전주 지역에 폭설이 내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설차를 지원한 바 있으며, 전주시도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물품을 제작해 안동시

에 전달하는 등 양 도시는 자매도시로써 꾸준히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자매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에는 적극 협력해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결의식 가져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임원진과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결의식'을 열고, 선언문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실효성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신고 및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체계를 더욱 철저히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며, 존중과 배려의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참석자들은 다짐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성희롱과 성폭력



전주시설공단은 지난달 31일 임원진과 각 부서장,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결의식'을 열고, 선언문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실효성 강화를 다짐했다.

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공단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